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9(土)	10(日)
비온 뒤 맑음 4/7℃	구름조금 0/9℃

News

- 임차인 보호법 건교위 통과 ②
- 일곡중 논술교실 '대소소리' ③
- 이용열, 태권도 첫 금 ⑩



Jeollado

- 그 사람-레슬링 김원기씨 ⑦

Entertainment

- 광주 대형 콘서트 잇따라 ⑧
- 14~18일 광주국제영화제 ⑨

Wellbeing

- 식품 집중 탐구-강낭콩 ⑬



동원학원 56년 역사만 전통
남부대학교
www.nmbu.ac.kr
세명대학교
www.semyung.ac.kr
전남과학대학
www.jnsc.ac.kr

전남쌀 판매매니저 60명 수도권 '입맛 공략' 나선다

전남 쌀 판매매니저 60명이 이달말부터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을 구석구석 누비며 수도권 공략에 나선다.

쌀 판매매니저는 전남도가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도입한 독특한 판매제도. 이들은 수도권의 대형 급식처나 유통업체, 식당, 가정 등을 상대로 전남 쌀 관촉활동을 벌이고 판매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전남 쌀 판매의 첨병인 셈이다. 이들은 모집 과정에서부터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했다. 60명 정원에 지원자는 모두 241명. 수도권 거주자 자격을 제한했지만 경쟁률은 4대 1에 달했다.

지원자의 경력도 다양했다. 서울 명문대 출신을 비롯, 대형 유통업체 바이어를 지낸 유통 전문가와 대기업 사원 등 다양한 경력을 지닌 사람들이 대거 지원했다. 이들은 지난 6일 서울 마포구 성산동 신안빌딩에 위치한 (주)미(米)사랑인들 사무실에서 면접시험을 치렀다. 높은 경쟁률을 반영 하듯 시험장에는 열기가 넘쳤다.

"뛰어난 미질에 농가와 소비자의 직거래 시스템이 확보됐다는 점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지원했습니다." 지원자들은 자신들이 마련한 나름의 판매 계획을 진지하게 설명해 나갔다. 지원자가 대거 몰린 것은 전남도의 적절한 유인책과 직거래 시스템에 의한 가격 경쟁력 확보 덕분으로 풀이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10월 농산물 유통법인인 미사랑인들과 공동으로 전남 쌀 유통회사를 만들어 기반 구축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도 고양시에는 대형 물류창고를 마련했다. 선발된 판매 매니저에게는 영업용 1t 차량을 무상으로 대여해준다. 쌀 전문 유통법인 '미사랑인'

들'은 판매 매니저들의 마케팅 교육과 관리를 전담한다.

여기에 장흥, 보성, 남평 등 6개 농협 RPC에서 '녹색의 땅'이라는 우수한 공동 브랜드 쌀을 직접 공급, 중간 유통 단계의 마진을 없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것도 지원자들의 발길을 모은 것으로 풀이된다.

즉, 적은 비용으로 개인의 능력에 따라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지원자가 몰렸다는 것이다.

판매 매니저들은 하루 20kg 들이 50포 이상을 판매해야 한다. 이 시스템이 제대로 운용되면 연간 전남 쌀 판매량은 2만t(400억원)에 이르러 수도권 시장 개척이 단기간에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기대를 받고 있다.

지원자 유찬호(39)씨는 "판매 매니저 제도가 정착되면 전남 쌀의 명성을 감안할 때 수도권 시장 진입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전남 쌀 판매의 선봉에 서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원자 연승범(46)씨는

"전남도의 판매 매니저는 농산물 유통에 있어 혁명적인 제도로 본다"며 "전남지역에서 생산되는 다른 농산물에도 도입해볼 만 하다"고 말했다.

면접을 마친 송성원 미사랑인들 본부장은 "지원자들이 대거 몰려 점수도 거르며 면접을 봤다"며 "이번 판매 매니저 제도는 전남 쌀이 수도권 시장을 휩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날 면접을 통과한 80명의 예비합격자를 대상으로 서울·인천·경기지역 60개 마케팅 구역에 대한 조정을 거쳐 11일 최종 합격자 60명을 발표하고 이달 말 발대식을 거쳐 본격적인 시장개척에 돌입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일심회, 민노당 내 하부조직망 추진"

검찰 중간수사 발표...정치권·시민단체 수사 확대

공안당국이 이적단체로 규정된 '일심회' 조직원들이 남한에 통일전선체를 구축하기 위해 민노당, 시민단체 등에 들어가 '백두회', '선군정치 동지회', '8.25 동지회' 등 하부조직망 결성을 조직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북한공작원으로부터 직접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지령을 받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광택 미군기지 이전 등을 반미운동에 활용하려 시도하고 민노당 방북대표단 및 당직자 성향 분석, 각종 선거 동향 등 국가기밀 자료를 북한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공안당국은 이 사건을 6.15공동선언 이후 최대 간첩사건으로 규정하고 일심회의 하부조직과 이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정치권과 시민단체 쪽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8일 일심회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조직총책인 장민호(44·미국명 마이클 장)씨와 조직원 손정목(42)·이정훈(43)·이정강(43)·최기영(41)씨를 모두 국가보안법상의 간첩, 특수잠입·탈출, 이적단체 구성, 회합·통신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1989년 북한에 들어가 노동당에 가입한 뒤 '남한 내에 통일사업 조직을 꾸리려'는 대외연락부의 지령에 따라 2002년 1월 고교·대학 동문이거나 사업상 알게된 손씨와 두 이씨를 잇따라 포섭해 북한 전위조직인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의 강령을 그대로 따르는 이적단체인 일심회를 구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어 남한에 이른바 통일전선체를 구축하기 위해 하부조직망 구축에 나서 이정훈씨가 2002년 12월 '선군정치 동지회'와 '8.25동지회'를, 이정강씨가 2005년 11월 '백두회'를 각각 결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파프리카 무료 관촉

8일 오후 광주시 북구 중흥동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 앞에서 시민들이 연화 폭락으로 대일 수출이 막힌 파프리카를 봉지에 담아가고있다. 한국 파프리카 생산자 자조회 호남지부는 이날 광주시내 곳곳에서 1천300여 상자의 파프리카를 무료로 나눠주며 관촉활동을 벌였다. /위직랑기자 jrwi@kwangju.co.kr

"미국 핵무기 한국에 없다"

盧대통령 밝혀

노무현 대통령은 8일 북한이 최근 '미국이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국에 미국의 핵무기는 없다"며 "미국의 핵무기라는 것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두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공지의 사실"이라고 말했다.

뉴질랜드를 국빈방문중인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웰링턴 국회의사당에서 헬렌 클라크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후 개최한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은 미국이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언론보도에 대한 의견을 말해달라"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노 대통령은 또 '남북정상회담 추진 또는 방북 용의'를 묻는 질문에 "정상회담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며, 북한은 혼자서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한국으로 초청할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의 한국방문은 한국 정부에 의해 여러 번 제기됐다"며 "지난 2000년에 한 약속을 이행하라고 여러 번 촉구해 왔고, 또 그밖에 언제든지 방문한다면 환영한다"고 말했다. /웰링턴=연합뉴스

유한양행
www.yuhan.co.kr
광고심의필 : 889-1000

초기감기 퇴장! 콘택골드!

콘택골드!

초기 감기약 - 콘택골드

재채기 콧물 코막힘 등 걸렸거나 생각되면 초기 감기약 콘택골드로 퇴장시키세요!
불청객 감기의 파를 플레어인 콘택골드를 잊지마세요!

특정약형 제4회 상생대회 080-024-1188수상자 유급수령 062-382-5400 (대) 062-382-0615 (국) 049-527-3033 부산 051-982-4071